

“코로나 방역관리 철저·진료체계 구축 매진”

박용욱 신임 빛고을전남대병원장

‘위기 곧 기회’ 청사진 제시…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충실
효율적 인적·물적 관리 등 경영 확립…조직문화 개선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 및 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남대병원 본원 및 화순전남대병원과 원활한 진료가 이뤄지고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의 특화병원으로 거듭나도록 진료와 연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박용욱 신임 빛고을전남대병원장이 취임했다. 박 병원장은 22일 “진료만 하던 조직원에서 이끌어가는 병원장이 되다보니 영광스러움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듣든 말든 발판이 되어준 전남대학교에 보답하고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병원장은 ‘위기’는 곧 기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만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는 내비쳤다.

그는 주요 병원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철저한 방역관리에 매진함과 동시에 감염병전담병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진료활성화 정책으로 본원 및 화순전남대병원에 적체된 외래환자 및 수술대기 환자들을 진료함으로써 병원간 균형된 진료체계를 갖춰가겠다”고 말했다.



했다. 이어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특화병원으로서 면역학실험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편하

고 약물이나 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임상시험센터를 구축해 활발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효율적인 인적·물적 관리를 통해 발전적인 진료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에 맞춰 본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와 유기적으로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기세가 약화될 때까지는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퇴근 후 개인적인 자기개발의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30~40분간 1만보 걷기를 실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1만5천보 걷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운동효과를 그대로 환자들에게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진료체계 구축에 매진하겠다”며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의 특화병원으로 우뚝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오늘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가 23일 낮 12시30분부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다.

한국거버넌스학회·순천시·광주전남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성공적인 지역주도형 뉴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현 지방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소주제는 ▲지역주도형 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일자리 정책 ▲지난 10년, 앞으로 100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ZOOM) 혼합 세미나로 열린다.

제1주제 ‘지역주도형 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은 ‘한국형 뉴딜과 지역주도형 뉴딜’ ‘전남형 지역균형 뉴딜 전략’ ‘순천의 미래를 그리는 스마

트시티’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제2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일자리 정책’은 ‘고용 창출형 지역산업정책 방안’ ‘포스트코로나시대 지역일자리 정책 방향’ ‘전남 동부권 신성장동력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

제3주제 ‘지난 10년, 앞으로 100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선명(사진)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되고 있다”며 “학회에서 선도적으로 당면 지역 이슈에 대한 해법을 탐색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담양군 봉산면, ‘봉산택 이음반찬’ 나눔 실천

담양군 봉산면이 연중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봉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진병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0가구에 장조림과 열무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봉산택 이음반찬 나눔 사업’은 지역 사회 단체들이 릴레이로 매달 밀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

업으로 올해로 4년째 이어오고 있다.

진병준 위원장은 “이웃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잘 극복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진성 봉산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참여해준 추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광주여대, 총장-장애대학생 간담회 ‘호응’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장애대학생과의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으며, 이선재 총장과 박상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장애대학생과 장애도우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총장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며 느꼈던 고충과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며 “장애를 느끼지 않는 대학이 되도록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관 부서인 장애학생지원센터(센터장 박상희)는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우수 대학에 선정됐으며,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성(학습, 진로, 취업 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학생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최권범기자



전남개발공사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 발대식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10층 대강당에서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51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균형적으로 선정됐으며 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고객 만족 및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참여위원회는 2018년 처음 모집한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민간 참여 아이디어 심사와 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대식은 처음으로 실시간 유튜브 생방송과 함께 줌(ZOOM)을 통해 주민참여위원 뿐만 아니라, 전남도민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184만의 전남도민 행복시대를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주민참여위원들과 함께 걸겠다”며 “앞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열린 경영 정책을 펼쳐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동강대, 학원창립 제45주년 기념 교직원 포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는 학원창립 제45주년을 맞아 장기근속 교직원들을 표창했다.

동강대는 22일 오전 본관 1층 장원홀에서 ‘학원창립 제45주년 교직원 연공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남철 교수와 전병철 최기운씨가 각각 3

0년 근속상, 노재성 교수가 20년 근속상, 정주선 교수가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이민숙 총장은 “동강대학교는 교직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학원창립 45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자”고 격려했다. /최권범기자



남부소방서 ‘갑질없는 직장 만들기’ 캠페인

광주 남부소방서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현하고, 소통과 배려의 상호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두가 존중받는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우월적 지위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인격이나 외모 비하 폭언·폭행 등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해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매일 11일을 ‘한 (1) 사람을 위한 한 (1) 가지

실천’을 다짐하자는 ‘상호존중의 날’로 운영해 갑질 근절 자기진단 및 자체교육으로 배려·소통의 수평적 상호 존중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선도 남부소방서장은 “직급이나 직위는 당사자에게 부여된 의무와 책임으로 누군가에게 군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며 “소방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직권화합은 서로의 배려임을 새겨,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 문화 정착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태훈기자

윤석년 광주대 교수

‘과학·정보통신의 날’ 근정포장 수상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신문방송학과 윤석년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DDP에서 열린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방송통신 융합과 법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윤 교수는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 자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으며, 제2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활동을 통해 미디어 관련 기업과 학계 간 관계 구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미디어 기업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보호에 나서며, 방송 및 통신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장관급)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윤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지내며 우리나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대 홍보실장과 신문방송사 주간을 겸직하고 있는 윤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중재위원, 제27대 한국방송학회 회장,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최권범기자

이상준 동신대 교수, 대한건축학회상 교육상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가 2021년 대한건축학회상 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지난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26년 동안 동신대에서 재직하며 건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교육활동을 통해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과 전문 기술인들의 역량을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대한건축학회 이사 4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을 이끌고 다양한 학술 논문과 연구 활동으로 건축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현장에서 진행한 연구를 건축설계, 도시설계, 캡스톤디자인 등 대학 교과목에 적용하고 ‘광주 폐선부지 활용 방안’, ‘나주역사문화도시 활성화 방안’과 같은 대학생들의 팀 프로젝트를 직접 지도하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왔다.

광주·전남의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파일럿 연구, 도시건축설계 프로젝트, 심포지엄에 참여했으며 광주YMCA 좋은동네만들기 자문위원, 광주전남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녹색교통진흥포럼 위원 등을 맡아 NGO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왔다.

이 교수는 “활발한 교육·연구·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건축 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

‘디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근해안강망협회, 근해안강망 선주협회, 근해유지망협회, 연안개량안강망협회, 연안자망협회등 어업인들은 최근 목포수협 동부위원장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청룡 목포수협 조합장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는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가하는 일”이라며 “수산물 소비 급감, 해의 수출 단절 등 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경제 피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결론

●김은수(봉선중 교장)·김서희씨 아들 용석군, 정종태·송미자씨 딸 지현양=25일(일) 낮 12시 광주시 광산구 임광울대로 드메르웨딩홀 2층 CN을.